

# 널뛰는 배춧값에 농가 벌써부터 시름

### 전년대비 50% 폭락 6000원→3000원

### 올 작황 좋아 김장철 가격 하락 불보듯

본격적인 가을 배추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춧값이 많이 올라 김장 담그기를 걱정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배춧값 시세가 좋지 않아 폭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작년 배춧값이 폭등하면서 농가들이 앞다뉘 배추를 심는데다, 작황도 좋아 벌써부터 농가들은 가격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에서 거래되는 배추 1통 가격은 3000 원선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가까웠다. 대형마트 채소담당 관계자는 산지 작황이 좋고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 같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정 당국도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공급량의 증가로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가을배추 생산량은 155만t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국 배추 재배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 지역의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3.5kg 내외의 적정 크기의 고품질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 생육 지도에 나섰고, 출하 시기 조절하는 등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남 지역의 올 배추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총 4389ha(가을배추 1547ha 겨울배추 2841ha)로 지난해

보다 가을배추는 104ha, 겨울배추는 81ha 각각 늘었다.

김장용 무와 고추도 작황이 좋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용 무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15% 이상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고추 가격 역시 지난 여름 작황이 좋고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김장 걱정을 다소 덜었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격이 좋아 올해는 더 많

이 심었다는 배추농가 김모(68)씨는 "작황이 좋으면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다들 농사를 잘 지어 값이 내릴지 모른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주부 박모(53)씨는 "고춧값도 싼데 배추까지 싸면 주부 입장에서는 반값지만 시골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픈 일"이라며 "김장하는 양을 늘려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은, 광주카드 '秋역담기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가을을 맞이해 다음달 10일 까지 광주카드 '秋역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혼, 레저 및 여행 성수기인 가을을 맞이해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혼수 가전, 아웃도어, 골프용품, 하나투어 상품 등을 광주카드 결제시 이용 금액에 따라 2~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행사기간 중

광주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고급 DSLR카메라, 여행상품권, 포켓 포도,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골프에 호가를 위해 광주·전남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광주카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고급드라이버, 골프백, 퍼터, 골프용품세트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올 김장비 전년대비 30% 덜 든다

### 배추·무·고추 가격 하락

### 4인 가족 20만~22만원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덜 들 것으로 예측됐다.

13일 이마트가 김장 시작 주인 다음 달 첫 재추를 기준으로 추정 한 김장비용은 4인 가족당 20만~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3~28.9%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로는 배추는 지난해 이마트 판매가는 5만9600원인 반면 올해 김장철에는 절반 수준인 3만~4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무 가격도 10개 기준 지난해 2만1800원이었던 올해는 70% 가까이 떨어진 1만3000~1만4000 원원에 머물고, 고춧가루 역시 1.

8kg 한 봉 값이 지난해 7만4700 원에서 올해는 5만6000원 안팎으로 30% 넘게 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이달 들어 특등급 배추 10kg들이 한 마방의 평균 도매가는 689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달 전액 평균보다 34.0% 하락했다. 무도 18kg들이 특등급 한 상자 도매가가 평균 1만2천156 원으로 지난해보다 39.2%나 값이 내려갔다.

간마늘과 견고추 값도 지난해보다 각각 27.8%, 32.0% 가격이 내려갔다.

김장의 주요 부재료인 굴 등 수산물 가격은 일본 원전 사태 파문으로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 지난해보다 15~20% 낮은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연합뉴스



## 농협·대학생 고추수확 돕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13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농협 관내 연산동 농가에서 조선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온새미로봉사단) 학생과 함께 고추수확 및 페비닐 제거 등 농촌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사육돼지 1천만마리 사상 최대... 가격은 안정

돼지 사육 마릿수가 100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증가폭은 줄어들어 상반기와 같은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 사태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가축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9월 1일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1018만8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7000마리(0.1%)가 늘었다.

1년전보다는 25만1000마리(2.5%) 많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역대 최대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분기 1010만7000마리, 처음 1000만마리를 넘어선 후 소폭의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당국의 어미돼지(모돈) 감축 정책으로 새끼돼지 생산 마릿수가 감소했으나 도축 돼지가 전분기보다 줄면서 전체 두수는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어미돼지 마릿수는 작년 3분기 96만2000마리, 올해 2분기 95만2000마리, 3분기 89만7000마리로 감소세를 보였다. 새끼돼지 생산 마릿수는 작년 3분기 495만6000마리에서 올해 2분기 509만8000마리로 늘었다가 3분기 506만7000마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축 마릿수는 3~5월 408만7000마리, 6~8월 363만6000마리로 생산

마릿수보다 적었다.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3월 1kg당 2812원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는 4166원으로 오른 상태다.

산란계는 계란의 산지가격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267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74만7000마리(1.2%), 전년 동기보다 134만8000마리(2.2%) 각각 증가했다.

한우와 육우는 304만3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만1000마리(0.7%) 감소했고, 오리는 1224만6000마리로 전분기보다 104만1000마리(7.8%) 줄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美 정치 불확실성 해소될까 시장 촉각

이번 주 증시는 주 초반 미국 정치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시장행보 전반을 지배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당이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드리워졌던 정치 불확실성의 그늘이 걷히고 주 중 확인될 매크로 개선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시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 리스크의 완화는 매크로 지표 호조와 맞물리며, 증시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KOSPI는 그간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2050선 돌파를 타진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만일 미국 정치권이 17일 채무한도 상한선 도달시점까지 마땅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해 재차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가시화된다면 국내증시 측면에서 일정부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국내 증시는 미국발 이슈에서 벗어나 다시 경기지표와 기업실적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2·4분기를 고비로 한 점진적인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 및 추가 상승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던 국내 증시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과정에 들어섰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9월 초부터의 조정과정을 마무리하며 재차 주가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는 경기민감주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경기민감주 내에서도 소급, 가격메리트, 이익모멘텀 등에 따른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자동차 및 조선업종은 양호한 실적, 수주모멘텀, 외국인 수급 등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PB〉

# 국화대전

2013 KOREAN GRAND CHRYSANTHEMUM FESTIVAL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  
**10.25(금) ▶ 11.10(월)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